

조선산업 신생태계 구축 총력

전북도, 대기업 의존도 완화·중소형·특수선박 특화 조성키로

전북도가 조선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특수선박 중심의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전북도의 조선산업은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에 대한 체감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자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군산지역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옆친 데 맞친 격으로 코로나19 한파도 매섭게 날아들었다.

이에 전북도는 얼어붙은 도내 조선산업을 녹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건의와 함께, 도내 조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특수선에 특화된 신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도내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주 기업지원 밸류체인 구축으로 조속한 생태계 정상화와 성장지원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도는 조선산업 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5,4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 센터 구축 197억원 ▲조선해양 설치·운

송 인프라 구축 240억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97억원을 투자하는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 센터 구축'은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사업화로 연결되는 One-stop 지원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센터는 대지 9,000㎡에 연구·시험동 2,786㎡, 핵심 모듈 정비 등 18종의 정비를 구축해 중소기업 선박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다른 사업인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은 최근 늘어난 해상풍력발전 수요와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타워, 선박·블록, 해양구조물 등의 대형화에 따라 육상 운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형 구조물의 운반과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반잠수식 증량물 운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가 예산이 반영돼 국비 110억원(2021년 20억원)을 확보했으며, 2023

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도내 조선 해양기업의 업종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은 앞으로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및 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친환경·미래형 선박으로 성능 계량과 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5,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타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중소기업·특수선 중심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는 것은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전북 조선산업을 기술기반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전병승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 조선산업 신생태계 구축은 산업 혁신에 발맞춰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 기반으로서 성장해 전북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

전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내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농협은행은 저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보증·대출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 참여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추진단체의 역량, 상환능력 등을 평가한 후 오는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재원미련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시설 및 운전차량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북도 사회적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북 2개소(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고산다움협동조합)를 포함한 전국 11개소를 선정했으며, 전북도는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산업폐기물 소각장 화재 진압중'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11일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컨설턴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일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도민 물 복지 실현 위한 상수도 3대 중점과제 추진

도, 2190억원 투입해 수돗물 신뢰도 향상 도모

전북도가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민 물 복지 실현에 힘을 싣는다.

도는 사업비 2,190억원을 투입하는 '2021년도 상수도 분야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첫째, 농촌지역과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등에 48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다.

지난해 관로 115km 매설해 2,095가구에 상수도를 신규 공급한 결과 전국 광역도 중 가장 높은 89.2%의 면단위 보급실적을 나타냈다.

올해도 약 150km의 신규 관로를 농촌마을 구석구석까지 매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섬 지역인 군산 명도와 말도까지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선유도에서 방죽도간 해저관로를 2022년도에 말도까지 연장하게 되면 군산지역 유인도서 16개 중 9개 섬에 용담댐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도 만전을 기한다.

2020년도 소규모수도시설 97개소를 상수도로 전환하는 등 상수도 공급을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도 도내 682개소 약 4만여 명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0개소 소규모 시설개량도 병행할 계획이다.

둘째,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1,702억원을 투자해 도내 전 지역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도 정비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노후관로 세척, 자동수질측정장치, 세분화된 유량 감시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감초 정부는 시 지역까지만 관망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도·농 복합지역인 특성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도내 전 시·군 사업에 반영했다.

상수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정읍시가 2020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내 전 시·군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현재 71.1%인 유수율을 85%까지 높

인다면 안정적인 물 공급과 더불어 누수량 감소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먼저 도와 시·군, 수자원공사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수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통합관리 전산망'을 구축한다.

사고 발생 시 단수 범위를 최소화하고, 비상 용수공급, 시·군간 합동 대응 방안 마련 등 선제적 사고 대응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전북도 상수도 통합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활용한 도, 환경청, 시·군, 수자원공사 간 합동 모의훈련과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도 병행한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전문기술력을 활용해 도내 18개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맞춤형 기술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계획이다.

전북도 허정 환경복지국장은 "고품질 수돗물 공급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부터 관리까지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매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190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전북도·도 경제통상진흥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위해

전북도와 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숨 불어넣기에 나선다.

전북도는 올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억원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50억원 등 총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6억원, 경영안정

자금(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벤처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전북도가 대출 이자의 2~3%를 지원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6%, 경영안정자금은 도 이차 지원을 차감한 금리, 벤처자금은 0.6% 수준이다.

한편,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중 '설 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자금소진 시까지 특별 지원한다.

설 명절 긴급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년간 대출 이자의 2%를 전북도가 지원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주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육

성자금이 도내 중소기업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북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중소기업지원 → 자금지원)를 참고해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되며, 분기별 자금계획에 따라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인력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